

## 96년, 가전제품 주요 수출입국 현황

지난해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, 어디에 가장 많이 수출했을까. 관계당국 및 업계가 분석한 지난해 3·4분기까지의 수출입 상위국가를 보면 먼저 컬러TV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이 9백60만달러를 넘어서면서 3배 가까이(1백74.6%) 증가, 단연 1위를 차지했다. 그리고 수출입의 길목인 싱가포르로부터 8백47만(5.7% 증가)달러가 수입돼 2위에 올랐다. 일본에서는 2백21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면서 3위를 차지했으나 11.5% 줄어들었다. 컬러TV 수출국가는 러시아가 4억달러로 98.0%가 증가, 선두에 올라섰다.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(1억7백70만달러)에 대한 수출이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하면서 대일수출에 이어 3위로 급등했다. 또 루마니아(5천5백10만달러)·아르헨티나(4천9백70만달러)·카자흐스탄공화국(3천7백35만달러)·사우디아라비아(3천4백86만달러) 등 성장국가가 수출선두 10위권에 들어온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(EU)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지난해 컬러TV 수출의 『개도국 활기, 선진국 침체』현상을 그대로 보여줬다.

VCR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34.2%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위(2천2백49만달러)를 차지했다. 2위를 차지한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7백20만달러에 약간 못미쳤지만 증가율은 무려 3배이상(2백25.3%)에 달했다.

수출은 중국과 동남아 수출의 교두보인 홍콩이 1백70.2% 증가한 2억1천3백81만달러로 1위, 대미수출은 약 2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나 무려50.6%나 감소했다. 세탁기를 제외한 냉장고·전자레인지·에어컨 등 주요 전기기기 수입은 미국이 모두 1위를 휩쓸었다. 품목별로 볼때 가장 수출액이 많은 국가는 냉장고가 일본, 에어컨이 미국, 세탁기가 칠레 등 이었다. 먼저 냉장고의 경우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이 5천1백41만달러를 훨씬 상회하면서 11.4% 증가했다. 2위인 독일은 1백25만여달러에 그쳤지만 증가율은 40.2%에 이르렀다. 일본으로부터의 냉장고 수입도 금액은 4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51.9%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3위에 올라섰다. 수출 1위를 차지한 일본은 3천3백31만달러를 약간 웃돌았으나 95년 냉장고 대일수출 급성장세가 꺾이면서 25.5% 감소했다. 그리고 터키(2천7백99만달러)·아랍에미리트(2천4백77만달러)·러시아(2천4백6만달러)·대만(2천1백36만달러) 등 성장국가와 동남아가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.

국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에어컨의 수입은 미국에서 59만달러 이상으로 6배 가까이(4백88.7%) 확대했다. 2위는 22.7%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약 21만달러를 한국에 수출한 일본, 국산 에어컨 수출도 미국이 5천2백55만달러를 넘어서면서 1위(34.3% 증가)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(약 3천2백62만달러 이상)·스페인(2천5백20만달러 이상)·아르헨티나(1천8백40만달러 이상)순으로 이어졌다. 세탁기 수입은 독일이 3백67만달러로 0.7% 감소했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으며 대미 수입액은 2백71만달러로 29.8% 증가, 2위를 차지했다. 세탁기 수출은 칠레지역이 75.2% 증가한 3천5백66만달러에 달해 유망수출지역으로 급부상했다. 이어 대만(1천5백67만달러)이 각각 2·3위를 차지했으며 세탁기 대일수출은 1천2백30만달러에 육박하면서 1백46.0%나 급등, 4위에 올랐다.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수출도 무려 6배 가까이(4백70.8%)늘어나면서 8위로 등극했다. 전자레인지 수입은 미국(21만달러 이상)·핀란드(11만달러)·태국(6만달러 이상)순으로 많았다.

■자료제공 : 전자신문